

看護員의 需給

근자에 와서 우리나라에 간호원 數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이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발표 되고 있다.

현재의 간호원수가 需要量의 6분의 1도 못되니, 1, 2년내에 몇萬名이 필요하다느니 등, 국민보건을 위한 看護業務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갑자기 강조되는 듯하다.

현재 全國적으로 看護員免許所持者가 1만3천 8백명, 현재에서 免許行爲를 하고 있는 수가 약 7,000명이니 人口比로 볼때 3,000명에 1명 꼴도 못되는 숫자이다.

다른 人口의 증가, 의료보전기구의 신설, 확충과 동시에 간호원을 필요로 하는 分野가 넓어짐에 따라 간호원의 需要량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行政당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간호학교를 많이 증설하고 기존 간호교육기관의 학생定員을 대폭 增員해서 69년도 졸업생수 954명이 70년도에는 1,424명, 71년도에는 2,265명, 72년도에는 2,630명이 배출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므로 不足數도 年次의으로 完化되리라곤 본다.

사실 看護學生數의 增員은 이제 危險水位에 도달한 듯 하다.

당분간은 이들 학생들을 最低水準의 看護機能이라도 할 수 있는 간호원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施設과 指導力과 기타 여건을 마련하는데 행정부, 간호교육기관, 전문단체 및 사회일반이 합심 노력해야 될 줄 안다.

看護教育문제와 간호원의 資質문제는 더 근본 문제이기는 하나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수급문제만을 좀더 다루어 보고자 한다.

數字的 부족과 現實的 부족엔 차이 크다

오늘날 소위 福祉國家建設을 指向하는 나라는 대개가 간호원이 부족하다는 비명이다. 인구 3,000명에 간호원 1명꼴인 우리나라도, 인구 300명에 1명꼴인 미국도, 400명에 1명꼴인 유럽의 복지국가도 간호원은 다 부족하단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人口비례로는 즉 數字的으로서는 더 많이 부족한 우리나라와 필리핀 같은 데서 數字的으로는 덜 부족한 미국, 캐나다, 서독등으로 간호원이 많이 나간다는 사실이다.

간호원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本質的으로 看護業務란 國家와 民族을 초월한 일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歴史的으로도 女性職業으로는 가장 먼저 國際的으로 交流가 시작되었다.

또한 개인의 발전으로나 나라의 면으로나 民間外交面으로나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해외진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나가야 될 줄 안다.

다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즉 많이 나가게 되는 직접적인 理由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한국간호원이 제치 있게 일을 잘해서 혹은 우리나라가 外貨가 필요해서 많이 나갈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나라들은 간호원이 人口比例로는 우리나라보다 덜 부족하지만 現實的으로는 정말 더 부족하기 때문이다.

병원의 시설과 剝削과 다른 부서의 직원들을

다 준비해 놓고도 변허간호원이 없어서 病棟을 열지 못하고 있다.

看護員不足이라는 概念이 다르다

예산과 T. O는 있는데 看護敎育을 받은 간호원을 그 이상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간호원 부족이라고 한다. 이러한 不足을 메꾸기 위해 그 나라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既成看護員들을 誘致해 내려고 애쓴다. 時間勤務制를 허락하고, 家族手當을 지불하고, 초번(evening duty)이나 밤번 간호원들에게는 같은 8시간이라도 가정에서 즐길 시간을 제공한다해서 수당을 제공한다.

한창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고 가정에 발이 묶인 이들에게도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서 재교육 강습기회를 주기도 한다.

왜 이렇게 애를 쓸까? 특히 행정부나 병원운영자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도 그래도 부족한 나머지 세워진 수급대책과 방법에 의해서 결국 우리 간호원들도 청함을 받게 된다.

그들이 동족과 달이 다른 한국간호원이라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여의까지도 선불해가면서 데려가니까 갈 수 있는 것이다.

첫째 그들은 專門職免許, 특히 직접 人命을 다루는 면허에 대한 가치관을 달리하고 있으며, 둘째 그들은 병원이나 保健所는 간호원 없이는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외사는 客員으로도 잠시 방문진트라도 할 수 있으나 간호원에의 최저기준에 의한 數라도 확보해야 운영이 가능하다는 常識이 굳어져 있다.

세케르는 經濟的인 打算에 의해서 경험있는 간호원의 직업壽命을 연장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길러내는 일에도 열중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밑빠진 술에 물 붓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國民所得이 높은 다른 나라 말을 해서 무엇하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實情을 무시하고 유독 간호원만 대우를 외국수준으로 올리라는 말인가 하는 反問이 응당 있을 줄 안다.

筆者가 지적하고 싶은 점도 바로 이것이다. 즉 우리의 現實이 미국, 캐나다, 서독, 스칸디나비

아등과 같지 못하기에 看護員의 不足數도 尙 現實的으로 슬직하게 노출시키고 數를 減산하기에 앞서 實情을 통찰해야 될 줄 안다.

비율과 數字에 의한 不足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現實과 內容에 의한 不足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물론 現實的으로도 不足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왜 부족하냐 어느 정도 부족한가를 또한 바로 보아야 需給策의 代案도 順位도 결정하며 實踐 도중 에로도 打開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人口比例로 보아서는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다. 病院도, 病床數도, 醫師도, 齒科醫師도, 病院 行政專門家도, 結핵요양소도, 정신병원도 부족하다. 부족한 그 병상마저도 지방병원에는 입원 환자 부족으로 메꾸지 못하며 입원한 환자들은 홀이웃, 자리웃, 비누, 더운물 器具부족 등으로 기본적인 간호마저 부족이다. 또 大量生産의 副産物이기도 한 간호원들의 誠意와 能熱性도 부족이다.

서울시내에서 비교적 대우가 좋은 모병원에는 간호원의 이력서가 늘 밀려 있다고 한다.

農漁村은 고사하고 小都市에도 간호원이 대폭 부족이다.

간호원들의 使命感 不足도 문제이고 정부의 保健醫療施策과 예산의 부족도 문제이다. 지방 모 대학 부속병원에는 간호원은 70여명인데 正式職制로 채용된 간호원은 40여명이고 나머지는 임시직으로 불안정한 근무태세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간호원부족 이전에 T. O부족이다. 서독에서는 한국간호원의 한국에 있는 자매들의 부양수당을 지불해 가면서도 데려가는 이때 간호원이 결혼청집장과 더불어 他意에 의한 사표를 제출해야 되는 종합병원이 서울 안에도 있다.

階師로서가 아닌 病院行政者로서의 狀況에 對한 認織不足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닌상 싶다.

全國의 3,000여명 公務員간호원중에 3級 卍은 5명 미만이다. 90% 이상이 5級이나 10여년 경험자나 碩士, 學士간호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좀더 높은 職級도 부족이다.

전국 保健所看護員의 지도훈련을 맡고 있는 國立保健院에는 하나뿐이던 3級卍도 없어졌으니

이것은 간호원들의 힘의 부족이라고나 개탄해둘 밖에 없다. 하여간 이 모든 부족들이 간호원의 부족과 運命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需給策에 있어서도 간호원의 수급책만이 獨走를 할 수 없고 어찌동무를 하고 나가야 될 운명이다.

多角的 국가시책이 期待

現實의인 간호원수의 부족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행정당국은 이미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했고 또 실천단계에 있는 줄 안다.

간호원을 구하는 광고란에 「20세미만 간호원, 중졸정도 가함. 정백주사 능숙한 자 환영함」 등은 무엇을 의미하나? 간호원 부족이라는 口實을 자주 들고 나오며, 국가적으로 방방곡곡에 간호원을 배치시키는 展示효과를 생각하기 전에 심부름하는 아이들을 뺀 앞치마만 입혀 놓고 간호원이라고 부르는 우리들 醫療保健界 自體의 자가 모순을 벗어나야 될 줄로 안다.

간호원 하나 정당하게 배우해 주면 그만한 소독이 튀따르기 마련이다. 아마 이미 현명한 기업자들 중에는 이러한 주판으로 계산만은 완료한 분들도 많을 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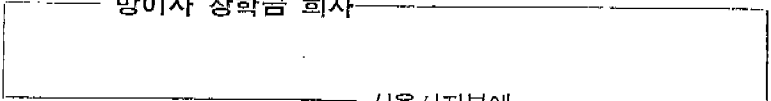
시내 모 개인병원에는 免許간호원 8명을 쓰기도 병원은 더 잘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러한 實情들이 간호원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대우와 직결되어 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는 적어도 正常的인 「피라민」식의 승진이 가능한 정도로 간호원을 위한 직급을 재조정해서 愜愜의인 간호원들이 더 오래 직장에 남아 있도록 해야겠다.

끝으로 이미 실시되는 醫療補助貫法의 施行規則을 年경 조절해서 保健所뿐 아니라 歸業醫院에 일하게 하고, 綜合병원에 직결한 수의 보조원을 잘 活用해서 有能한 간호원들의 適正配置도 고려했으면 도움이 되겠다.

〈7월14일자 후생일보에 게재되었음〉

방이사 장학금 회사



서울시지부에

서울시지부의 방용자이사는 지난 6월22일 ICN 총회 참석차 출국에 앞서 서울시지부에 장학금으로 15,500원을 회사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은 ICN 총회 참석 축하금

으로 서울시지부에서 쓴 13,000원과 지부 이사 및 직원들이 모아준 5,500원을 합한 것으로 앞으로 서울시지부 회원들의 교육사업을 위해 가장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다.

.....판프렛 발행.....

서울시지부에서는 서울시지부를 소개하는 영문 판프렛 100부를 발행했다.

서울시지부의 연혁, 운영, 조직 및 회원 실

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이 판프렛은 앞으로 서울시지부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많은 재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